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바라보다

이경원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학원 원장)



Q: 한국에서 과연 기독교 교육이 가능할까?

A: 입시는 어떻게 하고...

우리들에게 교육은 입시라는 등식이 성립 되어있고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매우 높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반드시 넘어야 하는 벽은 사실 입시가 아닐지도 모른다.

1. 기독교 교육의 적 인본주의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부의 책임으로 여기고 정부도 당연히 교육은 나라의 몫이라 여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존 러쉬두니(John Rushdoony)는 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 <5과, 교육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166~174쪽>에서 국가와 그 통치자

의 신성을 절대화하여 인신제사의 희생을 했던 이방 종교와 현대의 국가에 의한 인간 통제를 위한 공립학교 설립의 이유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 대신 국가와 그 통치자를 절대적인 개념의 자리에 놓고 인간과 교육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희생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했다. 사실, 성경은 두가지 중요한 흐름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유를 막는 절대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주체가 된 인간나라이다. 교육의 영역도 중립적이지 않아 그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인간의 나라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성경적 전제를 가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수 천 년의 역사와 민족들을 통해 인간이 주인인 교육과 그 결과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치열한 전쟁터로 아이들을 내모는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의 공교육을 통해, 인본주의 교육의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이며,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교육이라는 몰록신에게 우리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받치기를 멈추고 교육의 본질을 되 찾아와야 한다. 사실 모든 과목을 성경적 전제들의 관점에서 가르치며 모든 아이에게 하나님말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제공하는 기독교 학교의 역할이 있어야 가능 하다고 러쉬두니는 말한다.
<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 173쪽>

2. 기독교 교육의 적 이원론

그렇다고 우리에게 기독교학교와 교육이 있음에도 그 영향력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교육의 영역에서 합당한 순종을 돌릴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는 교육은 교육이고 신앙은 신앙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교육 안에 뿌리 깊게 내린 이원론이다. 교육, 정치, 과학,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그리

스도가 주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관한 영역을 영적인 영역에 가두어 물질적인 영역에서 주되심을 부인함으로 악과 타협하는 것이 이원론이다. 사실 성경은 모든 언약자녀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도 절대적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3. 교육의 문제는 배움에 관한 이야기이고 배움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 문제이다.

공교육현장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넘어서야 한다. 기독교 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 입시도 넘어야 하고, 아이들 모두를 행복하게 할 교육을 만들고 싶겠지만 두가지 다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고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왜 우리는 이 질문에서 떠나지 못하고 두 가지를 다 잡으려 할까? 아마도 존 듀이의 인본주의 공교육이 기선을 잡아 통합되어야 할 과목을 나누어 가르치는 구조적 모순속에서 기준과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표류하다가 사고하는 법과 가르치는 법을 잃어 버린 것이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순들을 질문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도록 만든 공교육의 힘이 느껴진다. 그럴걸.. 될걸..이라는 막연한 희망과 잘못된 경험을 따르는 비논리성이 믿음을 대치한지 오래되었다.

사립학교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도, 미션스쿨이라 이름하는 기독교 교육도, 기독교를 가장 앞에 내세우는 대안학교도 안개 속을 걸을 때가 많다. 교육방향과 방법을 다루는 교육철학을 보더라도 일반 공교육과 기독교 학교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혹 좋은 시작을 했더라도 현실의 벽 앞에 뒷걸음치기 십상이다. 사실, 기독교인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보면 경주를 할 때 승리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교육의 영역도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신앙의 영역이라

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4. 기독교 고전교육이 답이다.

기독교 학교는 반드시 예수그리스도 중심의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 가르치는 방법이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고전 교육은 이미 소화시킨 교과서 보다는 성격적, 혹은 비 성경적인 내용들을 분별하도록 살아 있는 책, 기독교 고전과 인문학 책을 사용하며, 문법, 논리, 수사의 삼학Trivium을 따라 가르친다. 삼학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성경적인 방법이며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사용한다.

문법단계에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실과 규칙을 밝히고,

논리학은 추론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실들과 규칙들을 밝히고,

수사학은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리와 규칙들을 밝힌다.

〈기독교적 고전교육198~199〉

지면상 문법과 수사학을 제외한 논리학을 왜 기독교가 가르쳐야 하는지 하비&로리 블루던의 “기독교적 고전교육” 6장 논리학 학습부분을 정리하였다.

5. 논리 가르치기

지금 우리 문화는 너무 많은 논리 (다원화논리주의 polylogism)에 직면해 있고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모두가 똑같이 타당하다는 한다. 불합리하고 가치 없는 다원화 논리주의로 인해 참된 논리를 거부하고 도덕은 선택의 권리가 되어, 죄의식을 주고 선택을 방해하는 절대적 기독교의 도덕은 버려지게 된다. 예를 들면, 낙태의 문제도 옳고 그름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시각보다 인간 선택의 문제가 되며 그 순간 기독교와 그 신과 나

아가 기독교인은 여성의 삶을 옥죄는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적 고전교육 162~166〉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 아이들에게 언제 준비시킬 것인가? 논리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춘기 때이다. 논리 수업 뿐 아니라 가능한 다른 과목 안에 사실, 의견, 모순 등 사고를 통해 문제점들을 걸러 내도록 토론과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논리는 진리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논리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

Q: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이교도 철학자에 의해 발명되지 않았는가? 이는 이교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A: 전구는 이교도 에디슨에 의해 발명 되었다. 우리는 에디슨의 철학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전구는 하나님의 세계의 진정한 법칙을 유용하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진정한 법칙을 유용하게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의 사실적인 추론의 과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이교도를 사용하신다.

〈기독교적 고전교육 제6장 186쪽〉

6.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 교육 비교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과 인본주의를 비교하면서, 내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서있는 교육의 현장이 어디인지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교육이 예수그리스도를 향할 수만 있다면 다음세대를 얻을 것이고, 교육 현장이 천국이 될 것이며, 배움의 즐거움은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

성경은 모든 언약 자녀의 생명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육영역에서도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육은 교육으로, 신앙은 신앙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인본주의 교육관 vs. 하나님 중심의 교육관

- 1. 인간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결정, 선택해야 한다.
vs. 하나님이 선이시고 진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 2. 진리란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다.
vs.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이 진리다.
- 3. 교육은 아이의 자기실현이며 자기 계발이다.
vs. 교육은 진리 체계 안에서의 훈련이다.
- 4. 교육을 통해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은 억제로부터의 자유이며, 진리가 우리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모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이다.
vs. 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와 아이의 의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깨어져야 한다.

- 5. 학교와 세계는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야 한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 아이의 의지는 성스럽다.
vs.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교사가 학생을 평가한다.
- 6. 인간의 문제는 사회이다. 사회는 인간에 의해 재창조되어야 한다.
vs. 인간의 문제는 죄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야 한다.
- 7. 가족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개인 혹은 사회가 기본이다.
vs.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제도이다.

사용한 책

- 1. 기독교적 고전 교육(Teaching the Trivium)
-하비, 로리 블루던 (꿈을 이루는 사람들)
- 2. 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 (The Philosophy of the Christian Surriculum)
-루서스 존 러쉬두니 (꿈을 이루는 사람들)



글 | 이경원

SICA(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학원)의 원장으로 역임하며,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를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였다.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의 필요성

정희영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였으며 그 시대의 사상과 필요를 반영한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그 나라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고 현대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반영하는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누리과정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구성된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개정되어 왔던 유치원교육과정이 2012년에 누리과정이란 이름으로 어린이집 교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과 통합되어 다시 재구성이 된 것이다. 누리과정은 그 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